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통계로 보는 여성

- 다양한 가족과 변화하는 가치관: 진단 및 시사점

조선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준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임연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박송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이진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다양한 가족과 변화하는 가치관: 진단 및 시사점

조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준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임연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박송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이진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1. 변화하는 가족과 인식, 그리고 우리사회 현안 진단

□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증가

- 삶의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오늘날 가족의 모습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음.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약 1/3에 해당되는 31.7%가 1인 가구로 나타난 것(통계청, 2021:6)과 같이, 법적 혼인관계의 남녀와 그 혈연 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모습이 아님.
- 가족구성과 가족생활 방식의 선택에 있어도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음.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동거·비혼부부, 비동거부부, 입양가족 등 친밀성의 모습은 법률과 혈연관계, 기성규범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선택과 가치관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음.
- 사회전반에 걸쳐 성평등 가치가 확산되면서 가족과 친밀성 영역에서도 고정적 성역할보다 남녀 배우자가 함께 일과 돌봄에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상호존중의 관계가 선호되는 추세임.

□ 다양한 가족에 따른 다양한 돌봄관계 등장

- 다양한 가족의 증가는 곧 친밀성 영역에서 다양한 돌봄관계의 형성으로 나타남. 즉, 한부모 가구 및 조손가구 돌봄, 성인자녀-노인부모 돌봄, 노노(老老)돌봄, 공동체돌봄 등 돌봄을 제공하고 충족하는 방식이 다양한 맥락과 여건 속에 나타날 것으로 보임.
- 기존 돌봄지원 정책으로는 다양한 가족생활에서 나타난 일생활 영역을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돌봄 사각지대 혹은 돌봄공백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다양성·보편성·성평등 중심의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

- 2022년 4월 27일 발표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은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의 비전과 “가족 다양성 인정” 및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①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②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 보장, ③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④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의 네 가지 영역별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여성가족부, 2021.4.27.:14).
- 동 기본계획은 최근 가족변화를 반영하여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다양성·보편성·성평등의 관점에서 수립하고 있음(김민아, 2021:36). 즉, 가족 다양성의 존중과, 이에 대응하는 생활여건 및 돌봄 체계의 보편성 강화, 일과 돌봄의 성평등 환경 조성의 세 가지 관점을 큰 틀로 제시하였음.

□ 가족 다양성과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대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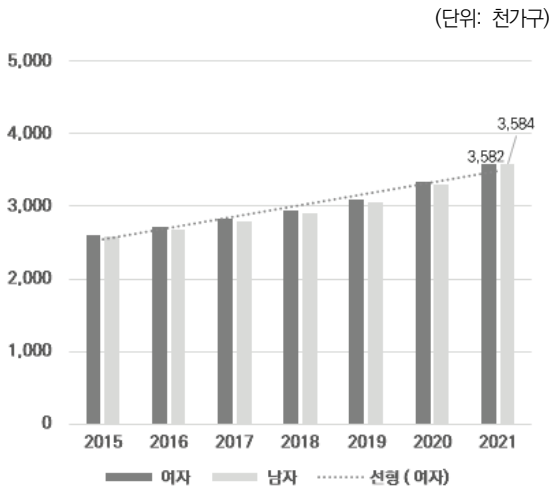
- 가족의 구성방식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아직 우리사회는 변화와 새로운 정책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예를 들어, 2020년 연예인 후지타 사유리씨에 의해 이슈화된 보조생식술 기반 자발적 비혼출산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음에도, 아직까지 법제도 환경은 다양한 가족구성의 선택권과 인식의 변화를 정책적 차원으로 구체화하는 데 요원한 상황이며, 관련 공적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가족다양성의 추이 및 특성을 살펴보고, 가족변화에 따른 돌봄 관계의 현황을 진단하며,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우리사회의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로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이를 통해 가족 다양성 시대에서 우리사회의 가족정책이 지향해야 할 모습을 보편적 돌봄 충족과 성평등 관계의 구축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제언하고자 함.

2. 가족 다양성 현황과 특성

1) 가족다양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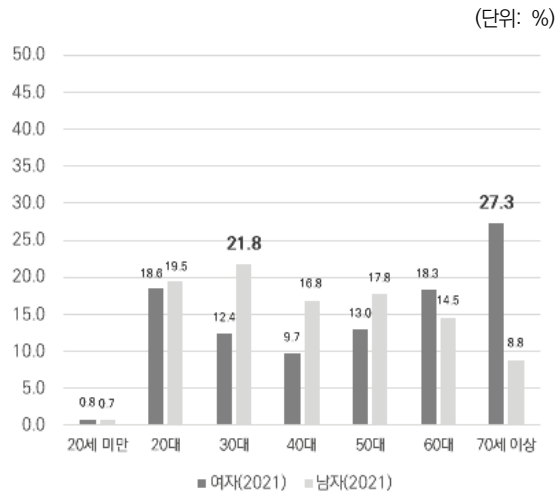
□ 1인가구 현황

-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남녀 모두 1인가구는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부터 여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남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은 70세 이상의 노인 가구에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30대에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자료.
주: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 제외

[그림 1] 성별 1인가구 현황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자료.
주: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 제외

[그림 2] 성별·연령별 1인가구 현황

- 1인가구 사유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30대까진 1순위 사유가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40대부터 성별 차이를 보임. 여성의 경우 4·50대의 1인 가구 1순위 사유는 ‘본인의 독립 생활을 위하여’인 반면, 남성은 ‘본인의 직장 때문에’로 나타남.
- [그림 2]에서 남성의 경우 30대가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직장 때문인 것으로 보임. 반면 여성은 70세 이상의 연령 집단이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었는데, 해당 연령 집단의 1인가구 사유는 ‘가족과 사별’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남성 동일 집단에 비해 해당 사유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성별 간 평균 수명 차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됨.

〈표 1〉 성별·연령별 1인가구 사유(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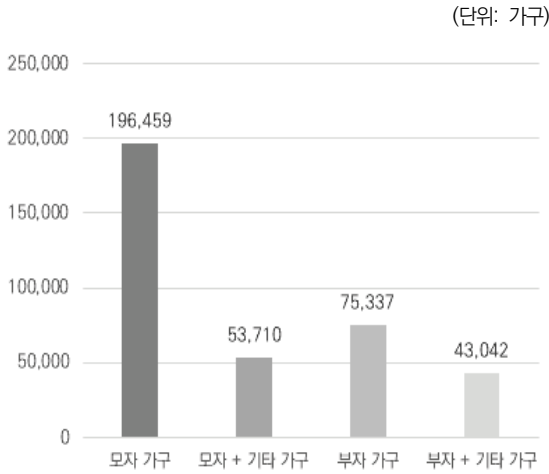
항목	본인의 직장 때문에	본인의 학업 때문에	본인의 독립 생활을 위하여	본인의 건강 때문에	가족이 타지에 거주하게 되어서	가족과 사별	기타	계
여자	25.1	4.6	23.3	1.5	22.1	22.9	0.4	100.0
20세 미만	14.1	82.1	0.0	0.0	3.1	0.6	0.0	100.0
20대	53.1	19.2	22.5	0.0	4.0	1.1	0.2	100.0
30대	54.2	0.6	36.0	0.5	6.4	1.8	0.5	100.0
40대	36.5	0.1	44.0	1.4	13.3	3.9	0.8	100.0
50대	22.5	0.0	32.8	2.0	31.1	10.6	0.9	100.0
60대	9.2	0.0	23.7	2.1	34.6	29.9	0.5	100.0
70세 이상	1.5	0.0	7.1	2.3	32.8	56.1	0.2	100.0
남자	43.5	5.3	29.1	1.6	11.8	8.0	0.7	100.0
20세 미만	17.1	79.1	0.0	0.0	3.2	0.5	0.1	100.0
20대	51.4	22.1	20.8	0.0	4.0	1.3	0.3	100.0
30대	61.4	0.6	30.2	0.4	4.7	2.1	0.5	100.0
40대	51.1	0.0	34.8	1.2	7.6	4.4	0.9	100.0
50대	40.3	0.0	34.4	2.5	14.5	7.1	1.2	100.0
60대	23.8	0.0	34.4	3.8	23.7	13.6	0.8	100.0
70세 이상	6.5	0.0	17.4	4.3	32.0	39.3	0.6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0)

주: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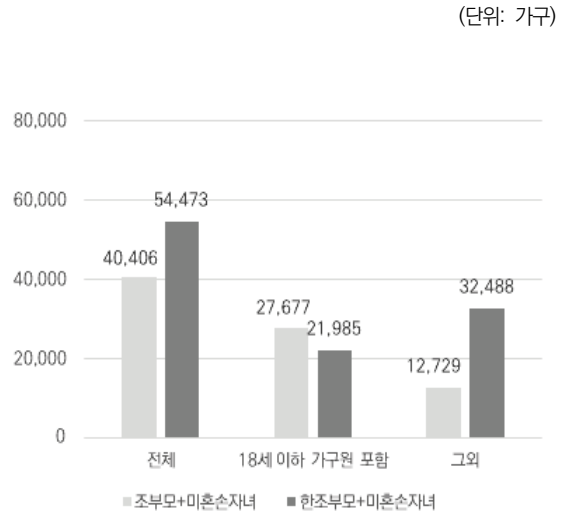
□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현황

-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한부모 가구 자체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세대 구성별로 살펴보면 모자 가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한부모 가구와 달리 조손가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세대 구성별로 살펴보면 한조부모와 미혼손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더 많았으며,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가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는 52.3%로 그 외의 조손가구(47.7%)보다 약 4.7%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1)

주: 자녀 중 최소 연령이 18세 이하의 자녀가인 가구만 포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원자료분석(2020)

주: 1) 2% 표본자료로 KOSIS에 공표된 수치와 차이 있을 수 있음.

2) 가구가중치 부여

3) 18세 이하 가구원 포함 = (한)조부모+미혼손자녀로 구성된 세대중 18세 이하의 가구원이 1명 이상 있는 경우

[그림 3] 한부모 가구 현황

[그림 4] 조손가구 현황

□ 외국인 다문화 가구 현황

- 다문화 가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외국인 다문화 가구원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음. 그중 결혼이민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 결혼이민자가 남성에 비해 약 4~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이한 점은 결혼이민자 남성의 경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여성은 2020년부터 2021년은 이전 시계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기타 외국인의 경우는 남녀 상관없이 2020~2021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보아, 여성 결혼이민자 수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조치에 따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됨.

〈표 2〉 다문화 가구 현황(외국인 중심)

(단위: 가구, 명)

항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다문화 가구 계	299,241	316,067	318,917	334,856	353,803	367,775	385,219
다문화 가구원 계	887,804	963,174	963,801	1,008,520	1,062,423	1,093,228	1,119,267
내국인(출생, 귀화) 계	711,740	753,548	757,487	793,444	834,330	876,703	900,379
외국인(결혼이민자) 계	143,206	158,620	159,958	165,919	173,085	173,104	174,122
남자	24,925	28,484	30,502	32,509	34,312	35,436	36,633
여자	118,281	130,136	129,456	133,410	138,773	137,668	137,489
외국인(기타) 계	32,858	51,006	46,356	49,157	55,008	43,421	44,766
남자	14,431	26,547	23,749	25,160	28,599	20,634	21,078
여자	18,427	24,459	22,607	23,997	26,409	22,787	23,688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주: - 내국인(출생): 출생·현재국적 한국(자녀 또는 한국인배우자 등)

- 내국인(귀화):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국적회복자 제외)

- 외국인(결혼이민자): 내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외국인

- 외국인(기타): 그 외 가구 내 외국인

2) 가족 다양성과 돌봄 문제

□ 한부모 가구 돌봄 제공과 성별 현황

-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된 한부모실태조사를 통하여 미취학자녀 및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유형 1순위를 살펴봄.
 -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가 가장 높고, 유치원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나, 이들의 비율은 감소한 한편,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경우는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초등학생자녀가 있는 경우도 초등돌봄/방과후교실이 2018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 감소하였고,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경우가 2018년 5.6%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다시 13.0%로 증가하여 이는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않게 되면서 직접 돌보게 되는 현상이 초등학생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2021년의 결과를 가구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모자가 있는 가구는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미취학아동을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경우는 주로 여성한부모가구에서 나타나며, 남성 한부모가구는 비교적 기관이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생 돌봄 형태는 전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돌보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며, 남성한부모가구는 여성한부모가구에 비해 조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

남. 특히, 부자가구의 경우, 29.7%로 초등돌봄/방과후교실 34.1%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표 5〉 미취학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의 돌봄유형(1순위)

(단위: %)

구분	2015	2018	2021				
				모자	모자+기타	부자	부자+기타
보육시설/ 어린이집	69.1	64.6	64.8	62.5	69.9	71.1	58.9
유치원	18.5	21.5	19.2	23.5	11.0	27.6	13.8
학원	0.4	0.5	0.9	1.9	0.0	0.0	0.0
조부모	3.4	3.7	5.5	0.5	4.3	0.0	25.2
친인척	0.5	-	0.4	0.0	0.0	0.0	2.1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	0.3	0.2	0.4	0.0	0.0	0.0
민간 베이비시터	-	0.2	-				
학습지/방문과외	-	0.1	-				
본인이 직접	8.1	9.1	9.0	11.0	14.7	1.3	0.0
기타	-		0.1	0.2	0.0	0.0	0.0

출처: 배호중 외(2021), 2021년 한부모실태조사, p64

여성가족부, 한부모실태조사, 2015-2018,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_3021300201&conn_path=12

〈표 6〉 초등학생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의 돌봄유형(1순위)

(단위: %)

구분	2015	2018	2021				
				모자	모자+기타	부자	부자+기타
초등돌봄/ 방과후교실	47.0	53.9	48.4	48.4	52.1	34.1	49.1
지역아동센터	8.6	5.7	6.1	6.1	5.5	2.8	7.4
학원	19.4	21	17.6	17.6	18.5	18.7	18.6
조부모	11.5	10.1	11.5	11.5	3.1	29.7	13.7
친인척	1.2	0.9	0.2	0.2	0.2	0.0	0.3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0.1	0.5	1.2	1.2	1.2	0.0	1.9
민간 베이비시터	0.0	-	-	-	-	-	-
학습지/방문과외	1.2	1.6	1.5	1.5	2.3	0.7	0.6
본인이 직접	10.6	5.6	13.0	13.0	16.2	14.0	8.2
기타	0.4	0.6	0.5	0.5	0.9	0.0	0.1

출처: 배호중 외(2021), 2021년 한부모실태조사, p68

여성가족부, 한부모실태조사, 2015-2018,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_3021300397&conn_path=12

□ 중고령 돌봄 제공과 성별 현황

- 중고령돌봄 제공 현황을 요양보호사¹⁾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로 살펴보고자 함.
- 최근 3년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규모 및 비율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주로 여성이며, 이들 중 50대가 40%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60대가 30%대에 근접하게 이르는 등 중년 여성이 주로 취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오랫동안 성별가사노동의 일환으로 가구내 돌봄의 역할이 여성에 의해 수행되면서 노인돌봄이 주된 업무인 요양보호사 역시 여성에 의해 점유되는 양상을 보임.

〈표 7〉 여성요양보호사 비율 및 연령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여성규모	여성비율	연령별 분포	여성규모	여성비율	연령별 분포	여성규모	여성비율	연령별 분포
20대 이하	1,465	71.1	1.0	2,382	75.1	1.0	1,390	76.3	1.0
30대	5,707	87.5	3.7	10,021	89.1	4.4	6,401	89.4	4.5
40대	30,234	94.1	19.9	50,678	94.5	22.3	30,734	94.0	21.5
50대	67,898	92.9	44.6	96,299	92.8	42.3	58,638	92.3	41.0
60대	43,253	83.2	28.4	62,521	83.5	27.5	40,932	81.5	28.6
70대 이상	3,683	64.0	2.4	5,817	65.3	2.6	5,096	64.7	3.6
전체	152,240	88.8	100.0	227,718	89.1	100.0	143,191	87.7	100.0

주: 각 연도별 응시자 현황에서 합격자를 대상으로 산출함.

2022년에는 6월 14일까지 집계된 수치임.

출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_응시자 현황_요양보호사, 2022-06-14 현재, <https://www.data.go.kr/data/15101120/fileData.do>.

3) 가족 다양성 수용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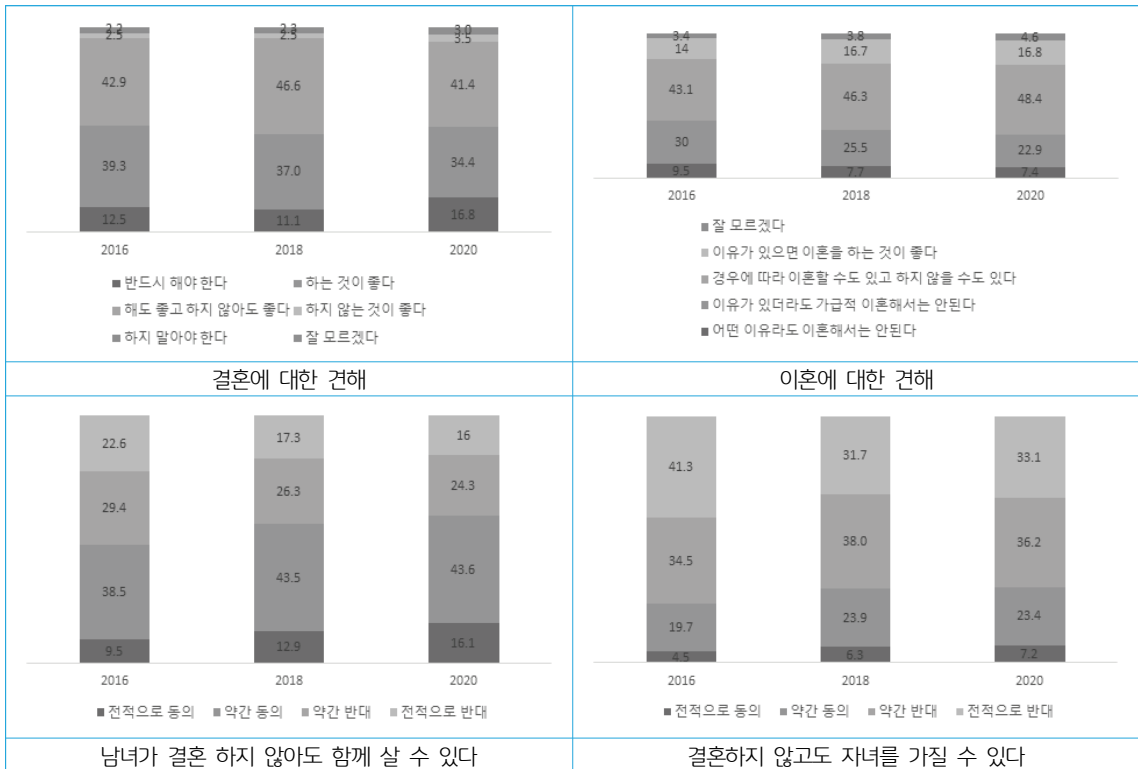
□ 결혼에 대한 자유로운 태도로의 변화

- 다양한 가족 형태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음.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전반적으로 결혼제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 다양성 수용도가 높은 편이었는데, 결혼은 '선택'을 넘어서 '하지 않아도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이혼에 대해서도 점차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

1)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주관 하에 자격증 시험을 합격한 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할 수 있다. 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한다(출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요양보호사 시험정보, https://www.kuksiwon.or.kr/subcrt/c_2027/1/view.do?seq=7&itm_seq=35, 2022.9.7. 인출).

해서는 안된다'는 태도가 2016년에는 30.0%였으나, 2020년에는 22.9%까지 하락하였음.

- 결혼에 대한 인식이 점차 자유로워지는 가운데 비혼동거에 대한 수용도는 확대되고 있음.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인식은 2016년 전적으로 동의하는 응답이 9.5%로 나타났으나, 2020년에는 16.1%까지 증가하였음.
- 비혼동거에 대한 수용도 확대에 따라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2016년 동의하는 비율(전적으로 동의+약간 동의)이 24.2%였으나, 2020년에는 30.6%까지 증가하였음.



출처: KOSIS(통계청, 사회조사), 2022.9.13.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 증가

-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수용도가 증가하며 열린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각 가족 형태로 구분하여 결과를 비교해 보면, 먼저 1인가구라 할 수 있는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수용도는 2019년 3.24→2021년 3.33으로 증가.

- 비혼 동거 및 이혼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결혼에 대한 인식을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고령층에서는 여전히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종의 통과의례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반면 젊은 연령층에서는 결혼에 대하여 훨씬 자유로운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젊은 연령대의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두드러지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연령대는 65세 이상 남성이 43.0%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남성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처럼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4.5%로 가장 많았음. 반면 여성의 경우 20대 여성 중 결혼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59.9%로 남성보다 약 15%p 더 많았으며,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 또한 20대 남성(3.6%)에 비해 약 5%p 많은 8.8%를 보이고 있음.
- 부부가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2019년 2.89→2.98로 증가, ‘외국인과 결혼’에 대한 수용도는 2019년 3.49→2021년 3.51로 증가하였음. 마지막으로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2019년 1.83→2020년 1.92→2021년 1.87로 전반적인 오름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5〉 성별·연령별 결혼에 대한 견해(2020)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계
여자	20~29세	4.8	21.2	59.9	8.8	2.4	3.0	100.0
	30~39세	6.9	25.8	58.0	5.1	0.8	3.4	100.0
	40~49세	5.7	29.1	57.7	4.6	0.7	2.2	100.0
	50~59세	11.6	36.7	46.4	2.8	0.8	1.6	100.0
	60세이상	31.5	37.1	25.5	2.7	0.6	2.7	100.0
	65세이상	35.6	36.5	21.8	2.6	0.6	2.9	100.0
남자	20~29세	11.3	33.2	44.5	3.6	1.6	5.9	100.0
	30~39세	13.6	37.4	42.1	2.7	0.5	3.7	100.0
	40~49세	13.7	39.3	41.2	2.1	1.0	2.7	100.0
	50~59세	20.4	41.9	33.3	2.4	0.3	1.8	100.0
	60세이상	37.0	40.6	19.0	1.2	0.5	1.7	100.0
	65세이상	43.0	38.0	15.7	1.1	0.6	1.7	100.0

〈표 6〉 다양한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 수용도(2019-2021)

구분		전혀 수용할 수 없음	별로 수용할 수 없음	약간 수용할 수 있음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	계	수용도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	2019	7.1	12.0	30.9	50.0	100.0	3.24
	2020	6.3	12.8	29.3	51.5	100.0	3.26
	2021	5.9	9.9	29.7	54.5	100.0	3.33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것	2019	17.0	15.9	28.1	39.1	100.0	2.89
	2020	15.1	17.8	26.7	40.4	100.0	2.92
	2021	14.3	16.5	26.4	42.9	100.0	2.98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	2019	2.5	5.0	33.5	59.0	100.0	3.49
	2020	2.3	4.9	30.3	62.4	100.0	3.53
	2021	2.3	5.5	31.6	60.7	100.0	3.51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2019	48.1	26.5	19.7	5.7	100.0	1.83
	2020	43.4	27.1	23.5	6.0	100.0	1.92
	2021	45.5	28.3	19.5	6.6	100.0	1.87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pp. 31-37. 인용.
조사 대상: 만19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 국민

□ 가족 부양 의무 완화

- 가족 부양 책임 의식이 약화되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자녀의 부모에 대한 책임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 모두 낮아지고 있음.
- 먼저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 의식을 보면,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2015년 27.2%→2020년 42.1%로 약 15%p 증가하였음. 또한 이에 더해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2015년 13.9%→2020년 27.6%로 약 14%p 상승하여 부모의 노후 돌봄에 대한 의식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 의식을 보면,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후 결혼준비나 결혼 이후 돌봄 책임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은 경제적 독립까지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7〉 부모 부양 및 부모 책임에 대한 생각(2015, 202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계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2015	27.2	30.2	42.5	100.0
	2020	42.1	32.0	25.8	100.0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2015	13.9	28.7	57.4	100.0
	2020	27.6	33.0	39.4	100.0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2015	34.4	31.9	33.7	100.0
	2020	31.3	31.0	37.6	100.0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2015	43.1	37.4	19.5	100.0
	2020	48.2	35.0	16.8	100.0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보아 줄 책임이 있다 (경제적 도움, 손자녀 돌보기 등)	2015	54.1	32.2	13.7	100.0
	2020	61.3	29.0	9.8	100.0

출처: KOSIS(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22.9.13.

3. 다양한 가족의 보편적 돌봄 충족을 위한 가족정책 재구조화

□ 다양한 가족 증가와 가치관 변화, 새로운 돌봄 문제 등장

- 분석결과 우리사회의 가족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역시 증가 추세에 있음.
 - (가족 다양성 증가) 1인가구,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외국인·다문화가구 등 다양한 가구 규모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
 - (가족 가치관 변화) 결혼비혼, 이혼, 비혼동거, 비혼출산, 무자녀가구, 다문화가족, 청소년출산 등 다양한 가족구성 방식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음. 또한 가족부양에 대한 인식에서도 부모와 자녀간 부양의무의 당위성보다 개인의 삶의 자율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가족구성의 다양성 증가와 가치관의 변화는 새로운 돌봄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기존 돌봄지원체계가 해소하기 어려운 유형의 돌봄공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예컨대, 양부모 가족이 주축이 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서 한부모 가구가 겪는 생계와 돌봄 병행의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고령가구원 사이에 노노(老老) 간병·돌봄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 취약성 문제 등은 우리사회의 가족 다양성이 증가했음에도 돌봄의 충족과 선택에 대한 유연성이 낮고, 특히 돌봄제공 과정에서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가중되는 불평등한 관계로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 줌.

□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한 보편적 돌봄 제공 필요

- 돌봄은 보편적 필요의 문제임. 과거보다 가족을 구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원화되었으므로, 다양한 가족의 일가정 수요를 충족하면서 개개인에게 삶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돌봄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다양한 가족의 돌봄문제는 가족구성원 간 보다 평등한 관계 속에서 돌봄 제공과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봄관계의 재구축을 필요로 함. 다시 말해, 다양한 가족구성의 포용은 성평등한 친밀성 관계 구축에 기반한 보편적 돌봄을 충족하는 돌봄관계로 재구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함.

□ 다양한 가족의 일과 돌봄 수요 파악을 위한 경험적 자료 구축 필요

-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족 현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이들의 돌봄 제공 현황과 돌봄수요 전반의 지평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직까지 변화된 가족 및 친밀한 관계에서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돌봄이 제공되고 충족되는지의 다양한 돌봄관계 현황과 돌봄 사각지대를 진단할 수 있는 자료는 제한적인 편임. 향후 일·돌봄 영역의 다변화된 이면들을 드러내고 정책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실태조사가 수행되어야 함.

• 참고문헌 •

배호중, 정가원, 박미진, 선보영, 성경(2021).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한부모실태조사, 2015-2018,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1300397&conn_path=I2
 통계청(2015-2021). 「인구총조사」.
 통계청(2020). 「인구총조사」 원자료.
 통계청(2021).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여성가족부(2020). 「2020년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여성가족부(2021.4.27.).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
 여성가족부(2021). 2021년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요양보호사 시험정보,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7/1/view.do?seq=7&itm_seq=35, 2022.9.7. 인출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응시자 현황 요양보호사, 2022-06-14 현재, <https://www.data.go.kr/data/15101120/fileData.do>, 2022.9.7. 인출.
 KOSIS(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22.9.13.
 KOSIS(통계청, 사회조사). 2022.9.13.